

푹푹 찌다 기습폭우...동남아 같은 광주·전남 기후

폭염특보 속 시간당 30mm 이상 호우 빈번...아열대 '스콜' 현상 많아 장마·태풍 외 언제든 물폭탄 가능성...내일 돌풍·천둥 동반 강한 비

광주·전남 지역에서 아열대 기후 패턴이 뚜렷해지고 있다.

올 여름 광주·전남 일부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상태에서 또다른 지역에는 피해를 낸 국지성 호우가 대표적이다.

지난 24일 광주시 북구 임동 광운교에서는 갑자기 쏟아진 비로 광주천이 불어 3명이 고립돼 구조됐다. 전남에는 목포와 해남, 진도 등지에 시간당 65mm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침수피해가 발생했다. 같은 기간 광주와 전남지역 11개 시·군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였다. 폭염주의보는 일최고체감온도가 33도 이상,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효된다.

최근 광주·전남 일부지역에서 시간당 30mm 이상 강도의 소나기가 빈번하게 내리고 있다. 하천범람과 침수피해가 발생했거나 우려될 정도로 강한 수준이다.

지난 18일 광주에 내린 소나기는 불과 2시간만에 74.5mm에 달했다. 그 중 60.8mm는 북구에 집중됐고 광산구에는 비가 내리지 않았다. 광산구는 이날 낮최고 기온이 34.2도를 찍었다.

즉, 폭염이 이어지는 날씨에서 일부 지역에만 강한 비를 쏟아내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폭염에 주기적으로 내리는 강한 소나기는 동남아시아 일대 아열대 기후에서 보이는 '스콜' 현상을 연상케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소나기는 뜨겁게 달궀진 지표면에서 발생한 뜨거운 공기가 상승하면서 상층부의 차가운 공기와 만나 내린다.

스콜은 더운 낮에 가열된 뜨거운 공기가 상승한다는 점은 소나기와 같다. 그런데 스콜은 상층에서 뜨거운 공기가 식어 구름을 만들고 국지성 호우를 내리게 하는 패턴이 주기적으로 반복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기상청은 올해 광주·전남에서는 서해와 남해상에서 불어오는 덥고 습한 바람에 의해 잦은 소나기가 내리면서 스콜현상에 비해 불규칙적으로 발생

해야 할 소나기가 비교적 규칙적으로 내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건조한 공기가 원인인 소나기는 강수 이후 날씨가 선선해지는 특징이 있지만 최근 광주·전남에 주기적으로 소나비가 내린 후에도 급격한 온도변화는 없다. 되려 온도는 유지된 채 습도만 높아져 일최고 체감온도만 치솟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기상 현상은 한반도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아열대기후에 접어들고 있다는 분석과 맞물려

있다.

기후학자 쿠펜과 트레와다의 기후 구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아열대 기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연간 가장 기온이 낮은 최한월 평균기온이 18도 이하를 보일 것 ▲연간 가장 기온이 높은 최난월 평균기온이 22도 이상에 분포해야 할 것 ▲월평균 기온이 10도 이상인 달이 연중 8개월 이상이어야 할 것 등 세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최근 10년(2013-2022년) 광주지역 월평균기온을 분석한 결과 10년 동안 모든 해에 최한월·최난월의 평균기온이 아열대 기후 기준을 만족했다. 1년 단위로 살펴보면 연중 8개월 이상 월평균 기온이 10도를 넘어 아열대기후의 모든 조건을 충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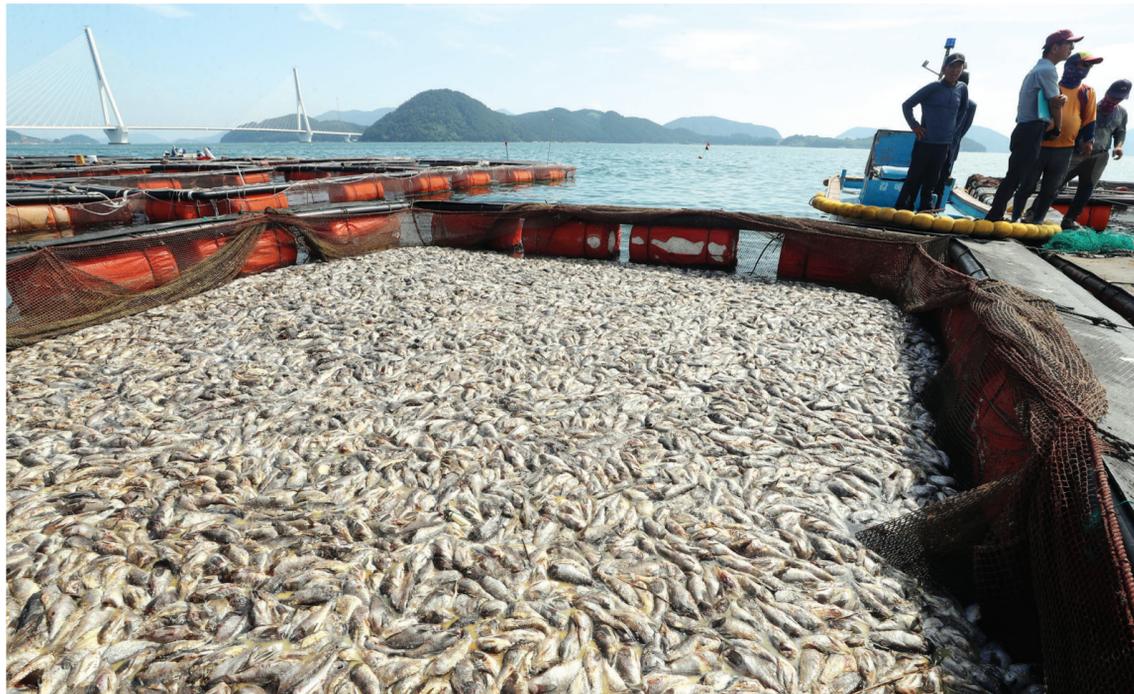
한 해가 10년 중 절반 이상인 7년에 달했다.

남부지방이 이미 아열대 기후 특성을 보이면서 여름철 비 피해는 장마나 태풍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우려도 나온다.

그동안 7월 장마와 8-10월까지 각종 태풍이 접근하며 비 피해가 발생했지만 '스콜'이 끼면서 언제든 물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이다.

한편, 27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28일까지 광주·전남에 5~30mm 비가 내릴 전망이다. 29일에는 전남동부남해안과 지리산부근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하고 많은 비가 쏟아진다고 기상청은 예보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여수시 돌산읍 군내면의 한 양식장에서 지난 26일 우럭이 집단 폐사해 물 위로 떠올라 있다.

/연합뉴스

이수권 광주지검장 사의 "국민만 보고 정도 걸어야"

이수권(56·사법연수원 26기·사진) 광주지검장이 사의를 밝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지난 25일 오전 9시께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사직인사'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지검장의 사의표명은 빠르면 이번 주 단행될 검찰 고위직 인사에서 후배기수인 사법연수원 29-30기 검사들의 검사장 승진이 예상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 지검장 외에도 이원석(54·27기) 검찰총장 선배 기수들의 사의 표명이 잇따르고 있다.

이 지검장은 "25년 검사 생활을 뒤로한 채 새로운 길을 떠나려 한다"며 "각지에서 근무하는 동안 검찰 가족들에게 너무나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장무상망"(長毋相忘, 오래도록 서로 잊지 말자)이라는 글귀로 검찰 가족에게 감사함을 표했다.

이어 "검찰은 국민만을 바라보면서 정도를 걸으며 특유의 독심과 사명감으로 그동안 많은 난관을 극복해 왔다"며 "앞으로도 모든 난관을 잘 극복할 거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서울 출생인 이 지검장은 영동고,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1994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인천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장, 수원지검 안양지청 부장검사, 대검 공안기획관, 수원지검 2차장 등을 지냈고 2011년에는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행복복구 59초 영상' 공모 개인·팀...10월까지 접수

광주시 북구가 '행복복구 59초 영상'을 공모한다.

북구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북구를 알리는 '행복복구 59초 영상'을 공모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들에게 북구를 적극 알리고 우수정책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영상은 청년, 생활SOC, 문화관광, 품격있는 일상 등을 주제로 하며 숏폼 형식의 순수창작 영상물이어야 한다. 분량은 59초 이하다.

참가는 개인 또는 4인 이하 팀을 구성해 참여할 수 있으며 기간은 9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다.

대상(1팀)작은 300만원, 최우수상(1팀) 200만원, 우수상(3팀) 각 100만원, 장려상(5팀) 각 50만원이 지급된다.

이외 참가상 30팀에게는 5만원 상당의 모바일 기프트콘이 주어진다. 수상작은 북구의 각종 온라인 홍보 콘텐츠로 활용될 계획이다.

참여 희망자는 북구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서류를 작성해 출품영상파일과 함께 이메일(ara9927@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김대인 기자 kdi@kwangju.co.kr

충장축제 '거리의 결혼식' 올릴 커플 모집

광주시 동구, 9월 1일까지

광주시 동구는 '제20회 광주 추억의 충장축제'에서 결혼식 퍼포먼스 '인생 최고의 대로(大路)'에 참여할 커플을 모집한다.

'인생 최고의 대로'는 올해 충장축제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프로그램이다. 참여자로 선정된 커플은 오는 10월 7-8일 혼수의 거리에서 거리 결혼식을 올릴 수 있다.

거리 결혼식은 신혼자의 사연을 바탕으로 악사, 배우 등 추억을 떠올리는 특별한 이벤트로 치러진다. 충장로4가 일대 버진로드와 웨

딩 포토존을 조성해 결혼식 퍼포먼스를 선보이는 내용 등으로 구성된다.

참여자는 악사·배우·주례를 비롯해 예식에 필요한 드레스·턱시도·한복, 폐백, 현장 웨딩촬영 등 결혼식에 필요한 전 과정을 지원받을 수 있다.

참여 대상은 연인이나 개인 사정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부부, 한국에 정착한 다문화 부부, 리마인드 웨딩을 희망하는 부부 등이다.

9월 1일까지 충장축제 누리집(recollecion.kr)에서 관련 서류를 내려받아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유연재 기자 yjyou@

여수 앞바다 양식 우럭 105만 마리 집단폐사

양식장 47곳 15억여원 피해

한대성 어종 고수온 원인 지적

여수 앞바다에서 양식중이던 물고기 수백만 마리가 집단폐사했다.

여수시는 여수 바다 양식장 47곳에서 양식어류 집단폐사 신고가 이어져 원인조사에 나섰다고 27일 밝혔다.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 15일부터 폐사신고가 잇따르면서 여수 삼산면에서 50만마리, 남면 30만마리, 화정면 20만마리, 돌산 5만마리 등이 집단 폐사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재까지 총 양식어종 105만 5000여마리가 집

단 폐사한 것으로 집계됐다.

재산피해는 1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피해 어종 대부분은 한대성 어종인 우럭이다.

여수시는 해수온도가 26도 이상이면 우럭이 폐사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이달 여수해역 평균 해수온도는 28-30도 내외였다는 점에서 고수온을 집단폐사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

여수시는 국립수산과학원 남해수산연구소에 의뢰해 양식어종의 시료 채취 등을 통해 집단폐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한편 여수 해역은 지난 22일부터 해수온도 28도 이상인 날이 3일 이상 지속될 때 발효되는 고수온 경보가 내려졌다. /장윤영 기자 zzang@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